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신규공무원 직무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는 신규공무원 75명을 대상으로 15(1일)과 18~19(2일) 총3일간 삼성생명 연수원과 김제시 일원에서 역량강화교육 및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화합과 소통, 김제시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방안 도출, 주요사업장 탐방으로 미래 김제시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었고, 교육훈련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와 조직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일차에는 예산실무, 회계실무, 새물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전산보안, 인사복합관리 등 신규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교육과 공무원복지제도 소개 등으로 진행하였다. 2~3일차에는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김제시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에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일원 등 주요사업장 탐방 하는 등 김제시 정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김제시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는데 신규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신규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표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가을 나들이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19일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60명과 함께 '치매극복 인지재활 선진 견학 및 기억충전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발굴에 전념했다.

또한 '기억충전' 프로그램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치매 극복 희망메시지를 전달함과 더불어 여수 엑스포 아쿠아플라넷 관람, 여수해상케이블카 체험, 오동도 관광 등을 실시하였다.

기억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중 교활동 김00(남/75세)님은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주어 평소 여행이 쉽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준 시간이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소싸움대회 지속유지 검토 필요”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열악한 농업현실 고려한 정책마련 촉구 등

완주군의회는 18일 늦은밤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졌다.

농업축산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주군의 지리적·환경적 상황과 열악한 농업의 실태를 고려한 농촌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심각한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이웃지역인 무주군 사례(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완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구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북지원이 전주에 위치해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서의원은 “완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홍보 강화 및 사용농가 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열악한 농업실태를 고려한 정책개발로 농업예산 증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부족한 농촌인력을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 해결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 했으며, “주요 농산물화물저가보장제의 품목 및 농작물재해보험에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소완섭(봉동·용진)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수혜범위 확대 등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대농가와 소농가별 차별화된 지원책 강구하고, 농촌인력부족 해소 위한 선진지견학 등을 제안”했다.

△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비정농촌웨딩공간사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맞춤형농정지원사업에 내부기준(현지확인, 자격조건 등)을 마련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 운수봉 의원(삼례·이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이전을 제안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적극 홍보와 내수면어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진영 의원(비례대표)은 “전통을 내세운 완주소싸움대회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군민들의 불편한 시선(동물학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싸움대회의 지속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따뜻한 희망나눔 계속

##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0 나눔캠페인’ 실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19일 완주군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완주군에서는 지난해 2억8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모금액의 330%인 8억6천만원을 배분받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 5400만원, 지역복지연계사업 4900만

원, 지정기탁 3억원, 기획사업 1억 7000만원, 현물사업 2억8000만원, 복권기금사업 1000만원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성금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군청 사회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내 방송사 및 신문사,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성금 다가온 추운겨울의 시작과 함께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성금모금이 시작됐다”며 “지난해 보여준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 희망 2020 나눔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지역 문화탐방

### 소양면 송광사 방문 전통차 체험 등 실시

완주군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지역 문화탐방을 전개했다.

19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지난 17일 교육생 및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지역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소양면 송광사를 둘러보고 전통차 체험을 실시했다. 이후에는 무주를 방문해 덕유산 항적봉 곤도라를 탑승하기도 했다.

완주군은 문화탐방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한국어교실을 여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지난 17일 교육생 및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양면 송광사를 둘러보고 전통차 체험을 실시했다.

강명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실 운영 및 지역문화 탐방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보건의, ‘남은 음식 줄이기’ 홍보

김제시보건의소(소장 김형희)는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홍보반을 구성하여 일반 음식점을 방문하여 점주 및 손님들에게 ‘남은 음식 줄이기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량은 2018년 연간 8,886톤으로 2011년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증가는 환경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기가 휘어지게 음식을 처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우리 전통 때문에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이다. 이에 영업주 뿐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차릴 때는 먹을 만큼, 먹을 때는 남김 없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남은 음식 줄이기 실천 사항’으로

는 음식점 점주는 △순남 비선호 반찬 1~2가지 줄이기 △소형 찬그릇에 소량 제공하기 △반반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기 △각자 덜어 먹을 수 있게 집거나 국자, 개인 찬기 제공하기 △위생적인 용기나 포장지를 비치하고 남은 음식은 싸가도록 권장하기 △음식점 이용객은 먹을 양 만큼 주문하기, 먹지 않은 음식은 미리 반납하기, 남은 음식은 싸가기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19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꿈키움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 꿈키움 진로콘서트 개최

### 김제시, 수능이후 고3 청소년 대상

김제시는 19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능준비로 쉼 없이 달려온 학생들을 위한 꿈키움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진로콘서트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의 진로특강과 올바른 청소년기 성장을 위해 청소년 흡연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고3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진로특강은 조영구 방송인의 강의로 “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와 목표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많은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바란다”는 조언과 함께 참석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진로콘서트 등을 통해 “수능이후 여가시간을 알차고 유용하게 보내 자신만의 아름다운 색깔과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꿈을 찾아 이루기 바라며, 인생 전환점에 서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